

# “17년만에 솔로앨범...기다려준 팬들에 감사”

솔로 1집 '초콜릿' 낸 가수 최강창민

### 열여섯살 동방신기 데뷔 이젠 서른두살... 심적 여유 생겨 타이틀곡 직접 작사 참여... “유노윤호 격려에 힘이 나요”

“어떤 음악을 해야겠다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겠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17년이지 않아요.”

데뷔 후 17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동방신기 최강창민(본명 심장민·32)은 솔로 데뷔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지금 내가 느끼고, 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대 위에서 편안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연차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17년이라는 절대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강창민은 2004년 ‘허그(HUG)’를 내며 동방신기 데뷔했다. 그룹은 ‘카시오페아’라 불리는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내 아이돌그룹 최초로 음반 누적 판매량이 1000만장을 넘기도 했다.

데뷔 때 열여섯살 소년이던 최강창민은 어느새 서른두살 청년이 됐고, 그동안 쌓인 음악 역량 덕분에 여유롭게 솔로 앨범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예전이었으면 ‘어떻게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 내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심적인 여유도 생기고 (당연히 부담감은 필수 불가결이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함께 그룹을 이루는 유노윤호도 최강창민의 솔로 데뷔를 격려했다.

동방신기는 당초 5인조로 데뷔했지만

박유천·김준수·김재중이 팀을 나가 2010년부터 JYJ로 활동했다.

함께 음악을 하는 동료이자 친구로 17년 세월을 보낸 이들은 서로 눈빛만으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윤호 형이 스태프를 뒤편까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잔뜩 사서 친히 방문하셨더라고요. ‘창민이 뮤직비디오 멋지게 만들어주세요’라는 부탁의 의미였을 텐데, 별 얘기는 안 하고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최강창민 신보에는 동명 타이틀곡을 비롯해 ‘하이힐’, ‘라이(Lie)’, ‘피아노’, ‘미, 마이셀프 & 아이(Me, Myself & I)’, ‘노 투모로우(No Tomorrow)’ 여섯 곡이 담겼다.

타이틀곡은 팝 댄스 장르로, 최강창민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초콜릿은 ‘욕망’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디저트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는 중독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초콜릿이라는 소재로 녹여보고 싶어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소속사는 이 노래에서 그의 음파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오페라 같은 웅장한 인트로가 인상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수록곡 ‘라이’는 가수 정하가 피쳐링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연인의 아슬아슬한 감정선을 그린 노래다.

최강창민은 “아쉽게도 녹음하면서 직



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곡에 청아 매력을 고스란히 녹여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시간 솔로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

“이 앨범을 카시오페아에게 헌정하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17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항상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연합뉴스

## 강성연-조한선, MBC ‘미쓰리는 알고 있다’ 주연

MBC가 4부작 드라마 ‘미쓰리는 알고 있다’에 강성연과 조한선을 캐스팅하며 제작에 돌입했다.

6일 MBC에 따르면 ‘미쓰리는 알고 있다’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드라마다. ‘나쁜 형사’, ‘황금정원’의 이동현 PD가 연출하고 신예 서영희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강성연은 동네 오지랖 여왕으로 통하는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 중개인 ‘이궁복’을, 조한선은 베테랑 형사 ‘인호철’을 맡았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진실을 추적하며 극을 이끌어간다.

이 작품은 작년 MBC 극본 공모 수상



강성연 조한선

작이다. 역대 MBC 드라마 극본 공모 수상작 중 실제 제작된 작품으로는 ‘차재발 광 오피스’, ‘파수꾼’, ‘앵그리맘’ 등이 있다.

오는 7월 방송. /연합뉴스

## 강호동·홍현희 먹방 토크쇼...SBS 필 ‘외식하는 날?’

‘먹기’에 관해서라면 남다른 일가견이 있는 방송인 강호동과 홍현희가 예능 ‘외식하는 날’ 시즌2에서 공동 MC로 호흡을 맞춘다.

SBS미디어넷 채널 SBS 필(FiL)은 6일 ‘외식하는 날’ 시즌2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들의 외식 문화를 관찰하는 리얼리티 토크쇼로, 2018년 7월 시즌1 방송을 시작해 지난해 3월 종영했다.

강호동은 연예계 대표 미식가이자 대식가로서 다양한 팁 전수와 생동감 있는



강호동 홍현희

리액션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홍현희 역시 ‘먹방 여신’다운 면모를 뽐내며 강호동과 ‘케미’를 선보인다.

이달 중 SBS FiL 방송. /연합뉴스

## ‘백일의 낭군님’ 일본 지상파 NHK 편성...내달 방송

tvN ‘백일의 낭군님’이 일본 방송사 NHK에서 다음 달 방송된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스튜디오드래곤은 6일 “‘백일의 낭군님’이 다음 달 10일부터 NHK 종합TV에서 방송될 예정”이라며 “CJ ENM 드라마가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방송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백일의 낭군님’은 왕세자에서 쓸모없

는 남자로 전락한 원득(도경수 분)과 조선 최고령 원녀(남편이 없어 슬퍼하는 여자) 홍신(남지현)의 전대미문 100일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2018년 가을 tvN 월화드라마로 방영됐으며, 첫 방송 시청률 5%대로 시작해 최종화에서는 평균 14.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제21대 총선 후보 법정토론 및 기초청원실 <광주북갑 후보 토론 연설>	40 지구촌 뉴스	4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자 토론회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50 아생여정 플러스	00 계약우정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도올학당 수다승철(재)	00 12 MBC 뉴스 20 8시 메가드S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5 KBS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5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토론 <비초칭>	55 닥터 365
2	00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토론 <비초칭>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뉴스브리핑
3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품미 오딧세이	00 정재영의 이수IN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스페셜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스페셜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35 KBC 8 뉴스 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서동용(민주당)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 <열린민주당> 10 역사저널 그날	00 계약우정	05 살맛나는 세상	
11	05 더 라이브 50 바다 건너 사랑	10 영화가 좋다(재)	00 PD수첩 55 그 남자의 기억법(재)	00 불타는 청춘
12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KBS 중계식(재)		20 나이트 라인 50 내모세도(재)

##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0 마사와 곰	19:00 형사 가제트
07:30 뽀뽀뽀 뽀로로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1)(재)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8:00 당동명 유치원	15: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9:45 차이엔트 팽TV
08:30 출동! 슈퍼윙스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00 건축탐구 - 집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겨울 동화, 중국 신장웨이우얼 피키스탄 -긴 겨울의 사람들, 허무춘>
09:30 윈드볼즈	16:10 픽시(재)	21:30 한국기행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1)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기운차다, 불 2부 속 난단 도다리>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22:40 건축탐구 - 집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7:20 출동! 슈퍼윙스(재)	23:30 경이로운 지구
	17:35 페퍼 피그(재)	23:45 우주탐사 이야기
	17:45 세미와 매직큐브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음 3월 15일 庚辰)

<p>36년생 감당하기에는 벅차겠다. 48년생 마무리가 좋으면 성취하는 바가 많으리라. 60년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72년생 노력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84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밀어붙여야 한다. 96년생 잘못 하다가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니라.</p> <p>행운의 숫자 : 07, 74</p>	<p>42년생 선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54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외형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78년생 복 속에 조그만 화의 불씨가 숨어 있다. 90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중국적으로는 수월해지리라. 02년생 적극적이어야만 한다.</p> <p>행운의 숫자 : 46, 61</p>
<p>37년생 주어진 국량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61년생 모순점을 해결한 후에 조치할 일이다. 73년생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85년생 중요한 것이 해결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따른다. 97년생 설득력 있는 실행이 뒤따라 줘야 한다.</p> <p>행운의 숫자 : 48, 87</p>	<p>31년생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3년생 사고의 전환만 하면 된다. 55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7년생 세속적인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일일이 확인하라. 91년생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p> <p>행운의 숫자 : 14, 88</p>
<p>38년생 금금해 왔던 것을 파악하게 되리라. 50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62년생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74년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류해야만 한다. 86년생 이동수나 매매운이 원활하겠다. 98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해나감에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57, 90</p>	<p>32년생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아픔이 보인다. 44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56년생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68년생 과욕불급이라 하겠으나,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80년생 제약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92년생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p> <p>행운의 숫자 : 34, 54</p>
<p>39년생 현상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겠다. 51년생 훗날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63년생 김홍이 바뀌어가며 변화무쌍하다. 75년생 조건이 보인다면 원전 분쇄하는 것이 무방하다. 87년생 현상 유지는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99년생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힘들겠다.</p> <p>행운의 숫자 : 10, 75</p>	<p>33년생 정확하게 선택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45년생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느니라. 57년생 현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한 동안 계속되리라. 69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겠다. 81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소중해서는 아니 된다. 93년생 상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하다.</p> <p>행운의 숫자 : 47, 71</p>
<p>40년생 원상회복의 기쁨이 크도다. 52년생 일취월장의 진척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4년생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솔선수범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76년생 조정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88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00년생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p> <p>행운의 숫자 : 27, 67</p>	<p>34년생 검은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보인다. 46년생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할 난처한 입장이다. 58년생 한 순간의 기분에 좌우 된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70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2년생 변화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94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p> <p>행운의 숫자 : 31, 50</p>
<p>41년생 깔끔하게 처리 될 것이니 마음 폭풍아도 된다. 53년생 기다두고 살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65년생 별 일 없을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77년생 현상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89년생 타격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01년생 1차적으로는 무난하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되리라.</p> <p>행운의 숫자 : 28, 82</p>	<p>35년생 피하기만 한다면 해결 될 수 없느니라. 47년생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59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71년생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국한하는 것이 순탄하다. 83년생 다각적으로 살펴보노라하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95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p> <p>행운의 숫자 : 23, 60</p>